

# ‘참(站)’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정동경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국어사 전공  
angel1543@hanmail.net

I. 머리말

II. ‘참(站)’의 현대국어 사전 기술

III. 시기별 ‘참(站)’의 의미 고찰

IV. ‘참(站)’의 의미 확장

V. 맺음말

## I. 머리말

‘참(站)’은 몽골어 ‘3aM’에서 유래한 말로서 ‘길(道)’이라는 뜻이다. 몽골의 원(元) 왕조 때에는 말을 타고 공문서를 전달하는 제도가 존재했는데 일정한 거리마다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곳을 두었고 이를 ‘역참’이라 일컬었다.<sup>1)</sup> 기원적으로 몽골어에서 차용된 단어인 ‘참’은 전기 중세국어 시기에 역참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이후 후기 중세국어, 근대국어, 개화기국어 시기 등 오랜 시기를 거치면서 그 의미나 용법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sup>2)</sup>

국어 사전류에서 다의어 혹은 동음어로 기술되는 ‘참’은 다음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국어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 (1) ㄱ. 기발의 경우 25리마다 참을 두어 파발이 교대하게 하였다.
- ㄴ. 모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식사와 두 번의 참이 제공되었다.
- ㄷ. 갈증을 느끼던 참에 탁자 위에서 생수를 발견하였다.

위의 예에서 (1ㄱ)의 ‘참’은 ‘관리가 여행을 가는 중에 쉬던 장소’를 뜻하는 것으로 공간적 의미를 갖는 명사로 쓰였으며, (1ㄴ)에서는 ‘노동을 하다가 쉬면서 먹는 음식’을 뜻하여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명사로 쓰였다. 마지막으로 (1ㄷ)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때나 동안’을 뜻하여 시간적 의미를 갖는 명사로 쓰였다. 물론 ‘참’을 그 용례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면 더 다양하게 세분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크게 공간, 식사, 시간이라는 세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현대국어 사전에서 ‘참’의 기술을 살펴보면 위의 세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참’을 다의관계로 볼 것인지, 동음관계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서부터 세부적 의미 기술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참’이 현대국어 이전 시기에 언어생활에서 쓰이기 시작하면서부

1) 최기호, 「한참, 새참, 밤참」, 『월간 샘터』 33(2002), 112쪽.

2) 근대국어나 개화기국어의 시점을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이 글에서는 국립국어연구원 편(1997, 1999)에 따라 근대국어 시기는 임진왜란 이후인 17세기부터 19세기 갑오경장 이전까지, 개화기국어 시기는 갑오경장 이후인 1890년대부터 1910년대까지로 한다.

터 현대국어에 이르는 긴 시기 동안 겪어온 ‘참’의 의미와 용법의 변화과정  
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참’의 용례를 관찰함으  
로써 공간, 식사, 시간 영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세 종류의 ‘참’이 동음어가  
아니라, 모두 본래 역참제도 아래에서 공무 차 역로를 따라 이동하던  
관리가 쉬어 가기 위한 장소를 지칭하는 ‘참’으로부터 의미 확장 과정을  
거쳐 생겨난 다의어로 볼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II장에서는 먼저 현대국어 사전에서 ‘참’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참’의 올바른 사전적 기술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힌다. III장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참’이 문헌에서 처음으로 등장하  
는 때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는 동안 보이는 용례를 고찰함으로써 ‘참’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되어가는지를 살펴본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고찰한  
‘참’의 의미 및 용법 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참’이 본래의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의미 확장을 이루게 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존재하는지를  
밝히기로 한다. V장에서는 본론의 모든 논의를 정리하고 그를 통하여  
현대국어의 사전에서 ‘참’의 올바른 기술 방안을 제안하기로 한다.

## II. ‘참(站)’의 현대국어 사전 기술

다양한 의미 영역에 속하는 ‘참’이 본래는 머리말에서 보인 (1-1)과  
같이 장소를 가리키는 명사로 쓰이다가 후에 새로이 식사나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명사로 확장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데 실제 현대국어  
사전들에서 ‘참’을 살펴보면 그 기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서, 식사 영역,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참’이 공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차용어 ‘참’으로부터 의미가 확장된 것으로  
이들을 다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차용어 ‘참’과 형태가  
같은 뿐 의미적 관련성이 없는 동음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기술이 다르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sup>3)</sup>

3) 표1에서는 필자가 참고한 사전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였으며 예문을 제외한 그 기술  
내용은 그대로 옮겼으나 일부 문장 부호나 번호의 모양은 필자가 임의대로 정리하였음

표1-현대국어 사전의 '참'의 기술

사전명	표제어	분류	기술
고려대 한국어 사전	참2	자립	①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는 음식(원어 새참) ② 수 관형사 뒤에서 의존적 용법으로 쓰여, 일을 하다가 쉬는 횟수나 몇 번 쉬었다 가야 하는 거리의 단위를 나타내는 말 ③ 길을 가다가 쉬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 ④ [역사]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驛路)를 가다가 쉬던 장소
		의존	①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은’, ‘-던’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경우나 시기를 나타내는 말 ②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는’, ‘-을’의 뒤에 쓰여 무엇을 할 생각이나 예정을 나타내는 말 ③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을’의 뒤에 쓰여, 어떤 행위 따위가 지속되는 동안을 나타내는 말
	참3(站)	명사	[역사] 조선시대, 관원이 공무로 다닐 때에 숙식을 제공하고 빈객(賓客)을 접대하기 위하여 각 주(州)와 현(縣)에 둔 객사(客舍)
금성 국어 대사전	참2	명사	⇒ 끼니때(경북 방언)
	참4(站)	자립	① [역]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驛路)를 가다가 쉬던 곳. ≥역참(驛站) ②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 ③ 일을 하다가 쉬기로 정하여진 시간에 먹는 식사 ④ 길을 가다가 잠시 쉬거나 밥을 먹는 곳
		의존	(‘-ㄴ(은) 이외의 관형형 어미와 함께 쓰이어) 어떠한 ‘경우’나 무엇을 할 ‘예정’을 나타내는 말
연세 한국어 사전	참2(站)	명사	① ㄱ.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를 가다가 쉬던 곳 ㄴ.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는 것 ② (의존적으로 쓰이어) ㄱ. (‘-ㄴ’ 참의 꼴로 쓰이어) 어떤 상태나 행위가 지속되는 일정한 시간이나 동안 ㄴ. 일을 하다가 쉬는 수나 몇 번 쉬었다 가야 하는 거리의 단위를 나타냄
	참3(站)	의존	① (‘-던/는 참이다’의 꼴로 쓰이어) 무엇을 하는 기회나 때 ② (‘-ㄴ/는 참이다’의 꼴로 쓰이어) 무엇을 할 모양이나 생각이나 예정
우리말 큰사전	참4(站)	명사	① =역참 ②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이나 동안 ③ 일을 하다가 일정하게 쉬는 번수나 몇 번 쉬었다 가야 하는 거리의 단위 ④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는 것. 또는 그 번수의 단위 ⑤ 길을 가다가 쉬거나 묵거나 하는 곳
		의존	① 무엇을 하는 기회나 때 ② 무엇을 할 ‘생각’이나 ‘예정’의 뜻
조선말 대사전	참3	명사	① 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동안 ② 이름수의 단위로도 쓰인다. ③ 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시간에 따로 차려먹는 식사 ④ 일을 시작하여 쉴 때까지의 일정한 동안 ⑤ “무엇을 하는 때”의 뜻 ⑥ “무엇을 할 ‘예정’, ‘셈’”의 뜻

을 밝힌다. 이후의 기술에서 설명의 편의를 위해 각 사전을 지칭할 때에 『고려대 한국어사전』은 [고], 『금성국어대사전』은 [금], 『연세한국어사전』은 [연], 『우리말큰사전』은 [우], 『조선말대사전』은 [조], 『표준국어대사전』은 [표]로 나타내기로 한다.

			⑦ 그 즉시로 ⑧ ('대다'와 함께 쓰이어) "길을 가다가 쉬면서 끼니를 먹는 곳"을 이르는 말 ⑨ [낱] 역참 <sup>4)</sup> 【95】 站
표준 국어 대사전	참3	명사	① 일을 하다가 일정하게 잠시 쉬는 동안. 한지를 빌려 站으로 적기도 한다. ② 일을 시작하여서 일정하게 쉬는 때까지의 사이 ③ 일을 하다가 잠시 쉬는 동안이나 끼니때가 되었을 때에 먹는 음식 ④ 길을 가다가 잠시 쉬어 묵거나 밥을 먹는 곳
		의존	① (어미 '-은, -던' 뒤에 쓰여) 무엇을 하는 경우나 때 ② (어미 '-는, -을' 뒤에 쓰여) 무엇을 할 생각이나 의향
	참6(站)	명사	[역사] 중앙 관아의 공문을 지방 관아에 전달하며 외국 사신의 왕래, 벼슬아치의 여행과 부임 때 마필(馬匹)을 공급하던 곳. 주요 도로에 대개 25리마다 하나씩 두었다.

표1을 통하여 '참'의 사전 기술에서 보이는 차이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이 글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은 세 가지 영역에 속하는 '참'의 의미를 하나의 표제어 아래 기술하고 있는 사전들, 다시 말해서 다의어로 처리한 사전과 둘 이상의 표제어를 두어 따로 기술하고 있는 사전들, 즉 동음어로 처리한 사전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금], [위], [조], 후자에는 [고], [연], [표]가 속한다. 전자에 속하는 사전 중에서 [금]은 '끼니를 먹을 때'를 의미하는 방언형 '참'을 따로 표제어로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표준어로서는 (1ㄱ-ㄷ)의 모든 용법이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설명되고 있어 앞서 공간, 식사, 식사라는 세 의미 영역에 속하는 '참'을 다의어로 보고 있다. 반면, 후자에 속하는 사전들 중에서 [고]와 [표]는 (1ㄱ)과 같이 '조선시대에 설치한 객사'를 가리키는 '참(站)'을 하나의 표제어로 두고, 한편으로는 장소, 식사, 시간의 영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참'을 또 다른 표제어 아래에서 기술하고 있어 장소 영역에 속하는 '참'이 두 표제어 아래에서 중복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연]은 (1ㄱ, ㄴ)의 용법, 즉 공간과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참'을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 설명하고 있으며, (1ㄷ)의 용법, 즉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참'은 그 의미를 더 세분하여 2개의 표제어 아래에 두어 기술하고 있다.

4) [조]에서는 "지난날에 쓰이던 한자말이나 한문 투의 말에 대하여서는 오늘날 그것이 일반언어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뜻풀이단의 첫머리에 (낱) 표시를 주어 그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였다"라고 약어 (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둘째, 공간, 식사, 시간 영역에 속하는 ‘참’을 한자어 ‘참(站)’으로 기술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에는 [금], [연], [위]가 속하며, 후자에는 [고], [조], [표]가 속한다. 후자에 속하는 사전들 중에서 [고]와 [표]는 역사 분야의 전문용어로서 기술된 ‘참’을 제외하고 공간, 식사, 시간의 영역에 속하는 ‘참’을 모두 고유어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히 [표]에서는 “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동안”을 의미하는 ‘참’만 한자 ‘站’을 빌려 적기도 한다고 기술하여 한자어 ‘참(站)’과는 어원이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는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①-⑧의 의미를 갖는 ‘참’은 모두 고유어로 기술하고 있으며, 현대의 언어생활에서는 쓰이지 않는 ⑨의 ‘참’만 한자어로 기술하고 있다.

셋째, 문법적인 측면에서 자립명사로서 쓰이는 ‘참’과 의존명사로서 쓰이는 ‘참’을 2개의 표제어로 처리한 것과 하나의 표제어 아래 처리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연]이 속하고, 후자에는 그 밖의 나머지 사전이 속한다. 그런데 [연]을 살펴보면 자립명사로서의 ‘참’과 의존명사로서의 ‘참’은 모두 한자어 ‘참(站)’으로 기술되어 있어 겹으로 볼 때에는 하나의 단어를 문법 단위의 차이에 따라 둘로 나누어 처리한 것으로 보기 쉽다. 하지만 자립명사로서의 ‘참2(站)’를 들여다보면 이 안에서 또 자립적으로 쓰이는 참과 의존적으로 쓰이는 ‘참’을 다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의존적으로 쓰이고 있는 ‘참’이라 하더라도 “어떤 상태나 행위가 지속되는 일정한 시간이나 동안”, “일을 하다가 쉬는 수나 쉬었다 가야 하는 거리의 단위”를 의미할 때와 “무엇을 하는 기회나 때”, “무엇을 할 모양이나 생각이나 예정”을 의미할 때를 서로 다른 표제어로 처리하고 있어 그 의미에 따라 앞의 두 의미로 쓰이는 ‘참’과 뒤의 두 의미로 쓰이는 ‘참’을 다의어가 아닌 동음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sup>5)</sup>

5) [연]의 ‘일러두기’에서도 “명사의 경우: 한 낱말이 자립적으로도 쓰이고, 의존적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로마 숫자로 구별하였다. 이때 비자립적인 쓰임을 보이는 것을 기술할 때, ‘[의존적으로 쓰이어]라는 정보를 주었다”고 밝히고 있어 표제어를 따로 처리한 것은 품사뿐만 아니라 그 의미관계에서도 다의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의 네 가지 의미 기술에 대한 [연]의 용례를 옮기면 아래와 같다.

ㄱ. (-할 시간/동안) 차 한 잔 마실 참 이 지났을까, 아이가 벌써 깨어 울기 시작했다.  
 ㄴ. (쉬는 수/거리의 단위) 6층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려면 두어 참을 쉬어야 할 계다.  
 ㄷ. (기회/때)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던 참이니 한 번만 봐 주시오.  
 ㄹ. (생각/예정) 그렇지 않아도 그다음 애기를 하려는 참이니 제발 다그치지 말게.

마지막으로 현대국어 사전들에서 ‘참’의 세부적 의미를 기술하는 데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각 사전에서 기술한 ‘참’의 의미는 적게는 다섯 가지부터 많게는 아홉 가지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전에서 기술한 ‘참’의 모든 의미 및 각 의미를 기술한 사전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 (2) ㄱ. 공무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를 가다가 쉬던 장소: [고] [금] [연] [위] [표]
- ㄴ. 길을 가다가 쉬거나 묵거나 밥을 먹을 수 있는 장소: [고] [금] [위] [조] [표]
- ㄷ.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혹은 끼니때)에 먹는 음식: [고] [금] [연] [위] [조] [표]
- ㄹ. 일을 하다가 쉬는 일정한 동안: [금] [위] [조] [표]
- ㅁ. 일을 시작하여 쉼 때까지의 동안: [조] [표]
- ㅂ. 일을 하다가 쉬는 횟수나 쉬었다 가야 하는 거리의 단위: [고] [연] [위] [조]
- ㅅ. 무엇을 하는 경우나 시기: [고] [금] [연] [위] [조] [표]
- ㅇ. 무엇을 할 생각이나 예정: [고] [금] [연] [위] [조] [표]
- ㅈ. 어떤 행위 따위가 지속되는 동안: [고] [연]
- ㅊ. 그 즉시로: [조]

(2)에 옮긴 ‘참’의 사전 의미 기술을 살펴보면, (2ㄱ-ㄷ)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참’의 의미로 (2ㄱ, ㄴ)은 공간 영역, (2ㄷ)은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이다. 특히 (2ㄱ)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목적(공무 수행 중의 휴식)을 가지고 특정한 지역(역로)에 설치된 것이라면 (2ㄴ)은 ‘참’의 용도나 위치가 일반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ㄹ-ㅈ)은 의존적으로 쓰이는 ‘참’의 의미들이다. 이 중 (2ㄹ-ㅂ)은 ‘일을 하는 행위’와 관련된 의미로서 (2ㄱ-ㄷ)과 동일한 환경에서 의미를 갖는 것들이다. (2ㄹ, ㅁ)은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이고, (2ㅂ)은 공간이나 시간 영역을 수치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2ㅅ-ㅈ)은 그에서 더 나아가 ‘참’이 쓰이는 환경이 ‘일’이라는 어느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지 않게 된 것으로 이때에는 모두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로만 쓰인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에 ‘참’의 바람직한 사전 기술을 위해서는 첫째, 세 의미 영역에 속하는 ‘참’이 모두 차용어 ‘참(站)’과 어원을 같이하여 의미적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의미가 다의관계에 있는지, 동음관계에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사전 기술에서 의미의 개수(個數)에서부터 순서 및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참’의 의미 기술을 통일하여 정리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시기별로 보이는 ‘참’의 의미 및 용법의 변화 양상을 살핍으로

써 ‘참’의 의미 기술 중 (2ㄱ-ㄴ)에 해당하는 ‘참’의 용례를 중심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Ⅲ. 시기별 ‘참(站)’의 의미 고찰

#### 1.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참’

『고려사(高麗史)』에서 13세기 원종 대(代)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站’이라는 단어는 한글 문헌에서는 16세기에 발견된다.<sup>6)</sup>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한글 문헌에서 나타나는 ‘참(站)’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ㄱ. 站 역참 俗呼水站 馬驛曰站 又俗謂立曰站 亦作 (훈몽 중5ㄱ)  
ㄴ. 擺站去 귀향 가다 (역어 상67ㄴ)

(3)에서와 같이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는 주로 『훈몽자회(訓蒙字會)』나 『역어유해(譯語類解)』와 같은 글자나 어휘를 학습하기 위한 문헌에서 발견되며 그 예가 많지 않다. 게다가 (3ㄴ)의 예에서는 중국어에는 ‘站’이 쓰였지만 그에 대응하는 우리말에서는 ‘참(站)’이 나타나지 않아 실제로 이 시기의 ‘참’의 용례는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3ㄱ)에서 보듯이 ‘참’은 (2ㄱ)과 동일한 의미로 ‘역참’을 뜻했으며, 한편으로는 그 주석에서와 같이 현대국어의 자전(字典)에서 보이는 “우두커니 서다”라는 새김에 대응되는 ‘立’을 뜻함을 알 수 있다.

#### 2. 근대국어 시기의 ‘참’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참’의 용례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던

---

6) 이승수(2012: 283)에 따르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역참(驛站)은 “몽골 제국에서 내륙 교통을 통하여 군사 및 물류가 이동하는 경로”였다. 몽골 제국은 13세기 중반에 정복자인 고려에 역참의 설치를 요구했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13세기 후반에는 압록강에서 개경으로 이어지는 역참 외에도 고려 내의 역참과 연결되는 요동 지역의 역참이 마련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전까지는 역참에 상응하는 제도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알려져 있는 역참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것에 비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는 비교적 많은 용례가 나타나며 이전 시기와는 달리 그 의미 또한 다양하다. 먼저 공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가진 ‘참’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4) ㄱ. 使臣이 이 站에 자디 아니홀 거시니 썰리 도흔 물을 가져오라 (박언 중7ㄴ)  
 ㄴ. 宿站 잘참 (몽유 상31ㄱ) 宿頭 잘참 (광물 인도(人道)7ㄱ)  
 ㄷ. 참마다 비에 느리시기 어렵기는 죠고마 호고 (첩해 초 6:21ㄱ)  
 ㄹ. 巡使道는 營을 불서 떠나 계시되 호르 호 참식 오시고 站站의셔 支應을  
 호매 여드레 만의 東萊府에 드시옵니 (인어 1:6ㄱ)  
 ㄹ'. 信使 거실 디도 극진이 호고 참참이 못히 請호여 振舞도 홀 양으로  
 호엿는디 (첩해 초 6:18ㄱ)

(4)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참’이 (2ㄱ)의 의미로 쓰이는 예가 17-19세기에 걸쳐 나타난다. 특히 (4ㄷ-ㄷ')에서와 같이 ‘각 참마다’의 뜻으로 해석되는 예가 17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는 데 ‘참’이나 ‘참참’에 조사 ‘마다’, ‘의셔’가 통합된 명사구 외에도 ‘참참’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부사도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이 시기의 문헌에서는 공간 영역에 속하는 ‘참’의 용례로서 (2ㄴ)의 의미 중 뒷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참을 지나는 횡수 혹은 거리의 단위’로 해석되는 ‘참’의 예를 찾을 수 있다.

- (5) ㄱ. 호르 아홉 站식 열 站식 네가늘 네 엇디 즐겨 웃듬 물을 가져오디 아니호는다  
 (박언 중 8ㄱ)  
 ㄴ. 고을로셔 두 참이도록 多人 中の 격기 남분 디 업고 이 밧기는 바다도  
 비도 조브니 (첩해 초 7:4ㄱ)  
 ㄷ. 거리 站 (한불 147)

(5)는 ‘참’이 수관형사를 선행하여 의존적으로 쓰인 예를 보여준다. (5ㄱ)의 밑줄 친 부분은 ‘하루에 아홉 참이나 열 참씩 (길을) 가거늘’로, (5ㄴ)의 밑줄 친 부분은 ‘고을로부터 두 참이 되도록’으로 해석되어 ‘가야 하거나 지나온 거리의 단위’를 ‘참’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참’의 용례는 19세기 문헌인 『한불자전(韓佛字典)』에서 (5ㄷ)과 같이 ‘站’을

‘거리’에 대응하여 기술하도록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가진 ‘참’의 예를 살펴보면 18세기의 문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6) ㄱ. 打店地方 낫참 / 中火 중화 하다 우더러워 (몽유 상31ㄱ)

ㄱ'. 腰站 ○ 中火站 打點地方 (역어보 17ㄴ)

ㄴ. 腰站 점심 [광물 인도(人道)7ㄱ]

ㄷ. 야츨상 바드실 쟈 대던의셔는두면 창 의 빈은스양의 금슈복즈 견마기  
되란치마 초일 야츨동도상 이일 삼일 야츨자던상 (형미가례시일고 2ㄱ)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식사 영역에 속하는 ‘참’은 자립적으로 쓰인 예는 찾을 수 없고 선행 성분을 동반하여 복합어의 구성 성분으로만 나타난다. 먼저 (6ㄱ)의 ‘낫참’의 의미를 (6ㄱ)의 ‘中火’와 (6ㄱ)을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中火’는 (6ㄱ)의 몽골어 ‘우더러워’가 “점심시간을 가지다, 점심 휴식 시간을 가지다”를 뜻하는 현대 몽골어 ‘ᠤᠳᠡᠷᠡᠭᠡᠢ’우들레히’에 대응되는 것을 근거로 했을 때 ‘점심’과 의미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ㄱ 또한 (6ㄱ)의 ‘中火站’은 ‘腰站’과 ‘打點地方’에 대응되고, 이는 다시 (6ㄱ)의 ‘낫참’에 대응되는 중국어인 ‘打店地方’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낫참’이 처음에는 ‘점심식사를 하는 곳’을 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ㄱ)에서 ‘참’은 문장에서 쓰인 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각주 ㄱ의 논의를 참고로 할 때에 (2ㄱ)보다는 (2ㄴ)에 가까운 의미로서 ‘참’이 쓰이는 환경이 넓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용 환경이 넓어진 것에서 더 나아가 (6ㄱ)에서는 장소를 뜻하던 중국어의 ‘腰站’이 (6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점심’에 대응되어 ‘식사를 하는 곳’에서 ‘식사’로 의미가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한국어에서도 ‘참’이 공간 영역의 의미만 갖던 것에서 식사 영역으로 그 의미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6ㄷ)에서 보듯이 19세기 중반의 문헌에서 ‘야츨’이 등장한다. ‘야츨’은 궁중에서 ‘밤참’을 이르던 말로 한문본의 ‘夜啖’에 대응하는 어휘로 나타난다. 한문본

7) 정연식(2001: 80)에 따르면 ‘중화(中火)’는 일반적으로 “길을 가는 도중에 먹는 밥”을 뜻하는데 ‘점심’에 대응하여 쓰이는 이유는 4장에서 자세히 밝히기로 한다. 『일동장유가(日東壯遊歌)』에 등장하는 ‘중화(中火)’에 대한 기록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에 주고 식벽(曉) 쉼나 닐드리(板橋) 동화(中火)하고 용인 읍늬 드러가니

에서는 보이지 않는 ‘站’이 한글본에서는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차용어 ‘참’이 고유어화되어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생산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시기의 문헌에서 그 의미가 시간 영역에 속하는 ‘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7) ㄱ. 初一站 초홀릭 十五站 보름 (몽유 상03ㄱ)
- ㄴ. 幾日 어닉 날 或 몇날 多站 (역어보 3ㄴ)
- ㄷ. 多站 언지 (몽유 하39ㄷ)
- ㄹ. 這站箇 이번 [註: 或云 여기세] 那站箇 그변 [註: 或云 거기세] (역어 下52ㄹ)
- ㅁ. 일은 봄 뉘에는 두 참에 갈나 치은 거시 무방하니 (잠상 13ㄱ)

(7ㄱ-ㄷ)은 중국어에서 ‘站’이 결합하여 형성된 단어가 한국어의 시간어에 대응되는 예이다. (7ㄱ-ㄷ)은 ‘站’이 “(-번째) 날”로 해석되어 시점(時點)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동경(2013: 199)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元)에서는 “수도를 중심으로 각 속령에 이르는 교통로상에서 말로 달려 하루를 갈 수 있는 거리(약 100리)마다” 참을 세웠기 때문에 참에서 다른 참까지의 거리를 시간으로 환산하였을 때 ‘하루’로 생각한다면 (7ㄱ)에서처럼 중국어에서는 ‘一站’, ‘十五站’과 같은 공간 표현이 ‘초홀릭’, ‘보름’과 같은 시간 표현으로 쓰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예들은 후에 한국어에서 ‘참’이 시간어로 쓰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7ㄹ, ㅁ)은 ‘참’이 시간 영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예이다. (7ㄹ)에서는 (7ㄱ-ㄷ)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站’은 한국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다른 시간이나 공간 표현에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의 문헌인 『잠상집요』에서 (7ㅁ)과 같이 한국어에서도 ‘참’이 시간 표현으로 쓰이는 예가 발견된다. (7ㅁ)은 “이른 봄에 누에는 두 차례(혹은 두 때)에 갈라 치는 것이 무방하니”라고 해석되는데 이때의 ‘참’은 수관형사를 선행하여 ‘차례나 ‘때’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시간 표현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8)</sup>

8) 홍윤표(2009: 428-429)에서도 이때의 ‘참’이 시간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3. 개화기국어 시기의 ‘참’

개화기국어 시기에 이르면 ‘참’이 본래의 뜻인 (2ㄱ)으로 쓰이는 예가 이전 시기에 비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근대적인 통신제도와 철도 교통이 대신 자리를 잡음에 따라 역참제도를 폐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공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가진 ‘참’의 예를 먼저 보이면 다음과 같다.

- (8) ㄱ. 압참 前站 (국한 205) 전참 前站 (국한 258)  
 ㄴ. 차참 次站 (국한 286)  
 ㄷ. 선참 先站 (국한 177)  
 ㄷ'. 예수께서 오병이어 가지시고 축사후 후 썩 덩이를 선참 세어 데즈의게  
 돌나 주어 (연경좌담 56)

(8ㄱ, ㄴ)은 ‘참’이 역로 위에 설치되면서 하나의 참과 다른 참이 공간적으로 전후 위치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생겨난 단어이다. (8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은 (2ㄱ)의 의미로 쓰일 때 길을 가는 방향의 앞에 놓인 참을 ‘압참’ 혹은 ‘전참’이라 하였는데 이는 ‘다음번 참을 의미하여 (8ㄴ)의 ‘차참’과 동일한 뜻을 가진다. (8ㄷ)의 ‘선참’은 ‘먼저 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였는데 이에 함축된 ‘차례’ 혹은 ‘순서’의 의미로 인해 (8ㄷ')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떠한 행동이나 일을 남보다 먼저 하는 것’을 뜻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가진 ‘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9) ㄱ. 밤참 夜點心 a night meal, luncheon at night (한영)  
 ㄱ'. 밤참 夜食 (국한 134)  
 ㄴ. 궁녀 풍속이 저녁마다 서로 모화 웃고 리약이하며 담배 먹고 밤참도 먹는지라  
 (경향보감 1: 381)  
 ㄴ'. 그날 밤에 그 도적들이 신너를 탈취하고 십오리를 가서 성감이라 하는  
 주막 거리에서 밤참하 먹고 갔다더라 (《경향신문》, 1906년 12월 7일자)  
 ㄴ". 또 초상집은 슬퍼하는 집이니 [...] 밤 경야한다 하고 혹 장기와 바둑  
 두며 혹 노름도 하며 또 밤에는 밤참 먹고 (『신학월보』 5: 61)

(9)의 ‘밤참’은 앞선 시기의 문헌에서 보인 ‘야참’의 유의어이다. (9ㄱ, ㄱ')의 ‘밤참’은 한자어 ‘夜點心’ ‘夜食’, 『한영자전』의 ‘a night meal’에 대응되는 것을 볼 때 ‘밤중에 먹는 식사’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야참’은 궁중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쓰였는데 이와 달리 ‘밤참’은 (9ㄴ)에서처럼 궁중에서 쓰이기도 하지만 (9ㄴ', ㄴ")의 예를 통해서 일상 영역에서도 쓰이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가진 ‘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0) ㄱ. 한참 一站 (국한 344)

ㄱ'. 흔참 一站 A little; a short time; an interval. A season; a round; a turn (한영)

ㄴ. 새알을 더운 떡다가 흔참 두거드면 (《독립신문》, 1897년 7월 6일자)

ㄷ. 누구든지 내게 와서 흔참 되는 오리길에 동행하자 근청커든 (연경좌담 27)

(10ㄱ, ㄱ')에서 보듯이 ‘흔참(흔참/한참)’은 한자어 ‘一站’에 대응되며 (10ㄱ')의 『한영자전』을 통해 ‘흔참’이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10ㄴ)과 같이 시간 표현으로 쓰인 예가 상당히 많이 발견된다. 또한 ‘흔참’은 (10ㄷ)에서처럼 상당한 정도의 ‘거리’를 뜻하여 여전히 공간 표현으로도 쓰임을 알 수 있다. 앞서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보았던 중국어의 ‘一站’이 시점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24시간이라는 시간적 길이를 나타냈던 것과는 달리 개화기 시기의 문헌에서 발견되는 한국어의 ‘흔참’은 상당히 길지만 중국어의 ‘一站’보다는 짧은 시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서의 참과 참 사이의 거리와 한국어의 참과 참 사이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sup>9)</sup>

이러한 해석은 박일환(1994)에서도 찾을 수 있다. 박일환(1994)에서는 ‘한참’의 어원을 “두 역참(驛站)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던 데서 비롯한 것으로 역참과 역참 사이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으로 쓰던 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이 글의

9) 과천문화원 편(1993)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한 참 사이의 거리는 기발의 경우는 20-30리(8-12km), 보발의 경우 30-50리(12-20km) 정도가 된다고 하였으며, 홍윤표(2009: 427)에서도 고려나 조선시대에 역참 사이의 거리는 20-30리가 된다고 하였다.

해석과도 일치한다. 반면, 홍윤표(2009: 425-433)에서는 이러한 입장과는 다르게 시간적 의미를 갖는 ‘한참’이 ‘一’과 ‘站’의 결합으로부터 생겨난 어휘이기는 하지만 이때의 ‘참’은 ‘역참’의 의미를 갖고 있는 차용어로서의 ‘站’이 아닌 ‘오래 서다’의 의미로 쓰인 ‘참’을 기원으로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즉, ‘한참’의 시간적 의미는 ‘참과 참 사이의 거리’라는 공간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참’이 갖고 있던 ‘오래 서다’라는 뜻이 함축하고 있는 시간적 의미에서 연유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 근거는 역참을 뜻할 때의 ‘一站’은 ‘거리’를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며 ‘한참’은 ‘시간’의 개념일 뿐 ‘거리’의 개념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하였다.<sup>10)</sup> 하지만 앞서 (5)에서 보았듯이 ‘참’과 ‘거리’가 동의어 내지 유의어로 대응되고 있어, ‘참’은 ‘거리’라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0ㄴ)에서처럼 ‘한참’이 시간적 의미가 아닌 공간적 의미로 쓰인 예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중국어에서는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참’의 예가 발견되었으나 한국어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웠는데 시간 표현인 ‘한참’의 용례가 개화기 문헌에서 많이 발견될 뿐만 아니라, 고소설이나 신소설과 같은 자료에서 ‘참’이 시간 표현으로 쓰이는 예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ㄱ. 조석 쉴 참 식벽이면 동춘서쇼 단이면서 익결하야 근근 연명하니 (〈심청전〉 김동욱 소장 90장본 24ㄴ)
- ㄴ. 그러면 너일 일즉이 썰나면 전녁참의 드리다하라 (〈춘향전〉 도남문고본 23ㄱ)
- ㄷ. 이웃집 노소부인 젓 잇난 스람드리 서로 닳타 왓서 참참이 젓을 주고 (〈심청전〉 김광순 소장 41장본 7ㄱ)
- ㄹ. 농쥬 어더먹고 쉬일 참을 당하야 한 연니 나오면서 으스도 흥을 보되 (〈춘향전〉 홍윤표 소장 154장본 94ㄴ)
- ㅁ. 경망흔 저 특기가 단참의 고지 듯고 여회를 욕을 혼다 (〈별주부전〉 권영철

10) 홍윤표(2009: 430)에서 ‘站’이 ‘오래 서다’의 뜻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를 재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站 역참 俗呼水站 馬驛曰站 又俗謂立曰站 亦作 (훈몽 중5ㄱ)

站 불참 참 驛也 又久立 (자류주석 上27ㄴ)

站 오리설 참 久立 역참 참 驛也 (자류주석 上44ㄱ)

소장)

- ㅂ. 이이 옥단아 내가 무슨 일이 잇서서 식전참에 드리와서 우느냐 (<치악산  
上71)  
ㅅ. 하로는 식벽참에 두사람이 말굽비를 느직이잡고 산천도 유람을호며 (<비  
행선> 11)

(11ㄱ-ㄴ)은 고소설에서 등장하는 ‘참’의 용례이며, (11ㅂ, ㅅ)은 신소설에 등장하는 ‘참’의 용례이다. (11ㄱ, ㄴ)의 ‘설 참’, ‘취일 참’은 ‘일을 하다가 쉬는 때’를 의미하고 (11ㄴ, ㅂ, ㅅ)의 ‘저녁참’, ‘식전참’, ‘식벽참’에 서는 ‘참’이 시간 명사인 ‘저녁’, ‘식전’, ‘식벽’과 결합하여 “- 때”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11ㄷ)은 ‘이웃집 노소부인(을 가리지 않고) 젖 있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와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젖을 주고’로 해석되어 앞서 ‘각 참마다’와 같이 공간적 의미를 가지던 ‘참참이’는 ‘틈이 날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와 같은 시간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 이때의 ‘참’ 또한 ‘일을 하다가 쉬어 가는 장소’가 ‘일을 하다가 쉬는 동안, 때’를 뜻하게 되어 동일한 맥락에서 공간 표현이 시간 표현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현대국어 시기의 ‘참(站)’

현대국어 시기의 ‘참’의 용례들에서도 이전 시기의 문헌과 마찬가지로 공간, 식사, 시간 등 세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보이는 예가 모두 나타난다. 먼저 공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가진 ‘참’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2) ㄱ. 정조는 각 참의 중로에서 혜경궁의 가마를 잠시 쉬게 하고……  
ㄴ. 애오개 아래 주막 참에 이르자 벌써 새벽이 희뽕하니 밝아오면서……  
ㄷ. 무더위 속에 네 참이나 되는 산길을 올라갔다.

(12)에서처럼 ‘참’이 공간적 의미를 갖고 쓰이는 예는 많지 않다. 이는 시대와 제도가 변화함에 따라 역참제도는 현재는 활용되지 않는 이전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주로 역사적인 기록이나 역사적

11) 현대국어 시기에 보이는 ‘참’의 용례들은 「세종 말뭉치 2010년 배포판」을 통하여 검색하거나 사전에 올라 있는 예들의 문장을 적당한 길이로 수정하였다.

배경하에 쓰인 맥락에서만 주로 등장할 뿐이다. 또한 (12ㄴ)과 같이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에 결합하여 쓰이는 예도 드물게 나타난다. 이때 ‘주막’은 이전 시기에 음식을 팔고 여행 중인 사람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던 장소이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쉬어 가면서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와 결합한 ‘참’ 또한 (2ㄴ)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12ㄷ)은 수관형사 뒤에서 ‘참’이 쓰인 예이다. 이때에 ‘네 참’이 가리키는 거리가 얼마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와는 달리 이처럼 수관형사 뒤에 쓰여 거리를 나타내는 용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다음은 ‘참’이 ‘식사’ 혹은 ‘음식’을 뜻하는 예들이다.

- (13) ㄱ. 길가에서 참을 먹고 있는 가난한 농사꾼도 모르는 행인을 굶이 붙들고  
모자라는 밥을 나누어 먹인다.  
ㄴ. 그래서 점심시간과 참시간이면 휴식을 취할 겸 쉬는 시간이 있었다.  
ㄷ. 일꾼들은 새참을 먹느라 잠시 일손을 놓았다.

이전 시기까지는 ‘참’이 ‘식사’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중화(中火)’나 ‘밤’과 같은 단어에 결합하여 ‘-에 먹는 식사’를 가리켜 ‘아참’이나 ‘저녁’에 먹는 기본 끼니 외의 시간에 먹는 식사를 의미했지만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대국어에서는 ‘참’이 선행하는 성분 없이 단독으로 쓰여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때에 ‘참’은 주로 ‘기본 식사 외에 일을 하다가 쉬는 때에 먹는 식사’를 가리킨다. 물론 ‘참’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질 때에는 ‘새참’으로 쓰이는 예가 훨씬 많이 나타난다. 이는 “한 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을 뜻하는 ‘사이’의 준말인 ‘새’에 ‘참’이 결합한 것이다.<sup>12)</sup> 이때에 ‘사이’ 혹은 ‘새’는 구체적으로 ‘일을 하다가 쉬기 시작한 때로부터 다시 일을 시작할 때까지의 동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 ‘새참’은 식사 영역에서 쓰이는 ‘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대국어에서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는 ‘참’의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새참’은 현대국어 이전의 문헌에서는 예를 찾을 수 없다. 현대국어 사전에서는 ‘새참’을 ‘사이참’의 준말로 기술하고 있으나 ‘새참’이 과연 ‘사이참’이 줄어 만들어진 단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실제 용례에서도 ‘새참’의 용례는 많이 나타나지만 ‘사이참’이 쓰인 예는 사전에서조차 찾기 힘들다.



- (14) ㄱ. 요번 참에 못 오면 나중이라도 오너라.  
 ㄴ. 이 아래 심 선생님이 아까 참에 내려오신 모양이던데……  
 ㄷ. 일터에 끝단지 가져다 놓고 휴식 참마다 돌아앉아 한 손가락씩 퍼 먹었다.  
 ㄹ. 아마 담배 한 대 참은 기다린 듯하다.  
 ㄴ. 이 씨는 구두를 만들 때면 항상 서너 참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곤 했다.  
 ㅂ. 남북이 직접 교역을 하기로 완전 합의를 본 참이었다.  
 ㅅ. 한참을 잠판 위에 서 있는 참에 누군가 말을 붙여 온다.  
 ㅇ. 그녀는 마침 갈증을 느끼던 참이었다.  
 ㅈ. 그렇지 않아도 그만 참이었어요.

(14)에서와 같이 현대국어에서는 이전 시기보다 시간적 의미로 쓰이는 예가 훨씬 많아지고 선행하는 성분의 유형 또한 다양해진다. (14ㄱ, ㄴ)과 같이 시간 명사나 시간 부사를 선행한 경우에는 ‘참’을 생략해도 문장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시간적 의미를 갖지 않은 명사를 선행하는 경우에도 선행 명사가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 (14ㄷ, ㄹ)에서처럼 ‘휴식을 취할 때’, ‘담배 한 대를 태울 동안’과 같이 ‘할 때’ 혹은 ‘할 동안’을 뜻한다. (14ㅂ)은 수관형사를 선행하여 공간상의 ‘거리’를 나타냈던 (12ㄷ)과는 달리 시간상의 거리, 즉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는데 이때에도 ‘참’이 가리키는 시간의 길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분명하지 않다. (14ㅅ-ㅇ)은 ‘참’이 관형사절을 선행하는 경우이다. 이때 관형사형 어미는 ‘-(으)ㄴ, -는, -던, -(으)ㄹ’이 가능하며 이때의 ‘참’은 ‘때, 동안, 중(中), 김’ 등의 의미를 갖는데, 보통 어떠한 일이나 상황이 진행 중인 사이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이전에 진행 중이던 상황이나 일이 중지되거나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때에 쓰인다.

‘참’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는 ‘참’이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에서도 포착된다. 현대국어에서 ‘X참’의 형태로 나타나는 합성어들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5) ㄱ. [역] 숙소참(宿所站), 숙참(宿站), 초참(初站), 역발참(驛發站), 역참(驛站), 칠참(七站), 잘참  
 ㄴ. 앞참(-站), 전참(前站)  
 (16) ㄱ. [방] 결참, 새끼참, 술참, 제참<sup>13)</sup>, 정참<sup>14)</sup>

13) ‘결참’, ‘새끼참’, ‘술참’, ‘제참’은 모두 ‘새참’의 유의어인 ‘결두리’의 방언형이다(결참, 제참(이상 경기), 새끼참(경상), 술참(전남)).

14) ‘점심때’의 방언(전남).

- ㄴ. [북] 길참<sup>15)</sup>, 자리참<sup>16)</sup>
- ㄷ. 밤참, 야참
- (17) 선참, 후참, 이참, 단참
- (18) ㄱ. (공간/식사) 중화참
- ㄴ. (공간/시간) 한참
- ㄷ. (식사/시간) 낮참, 막참, 사이참(새참), 아침참, 점심참, 저녁참, 중참
- ㄷ'. (식사/시간) [북] 새벽참<sup>17)</sup>, 일참<sup>18)</sup>

위에서 (15)는 공간, (16)은 식사, (17)은 시간 영역에 속하는 'X참'의 용례들이며 (18)은 이 중 두 영역 속하는 의미를 모두 갖고 있는 'X참'의 용례이다. 먼저 공간 영역에 속하는 'X참' 형태의 단어들을 살펴보면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현대국어에서는 용례를 거의 찾기 어려운 것들이다. 'X참'이 (16)에서와 같이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방언형이든 북한어이든 모두 기본 식사 시간이 아닌 때에 먹는 음식이나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며, 특히 이러한 음식을 먹는 시간은 대부분 일을 하거나 길을 가다가 쉬는 중에 속한다. 'X참'이 (17)에서처럼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에는 '할 기회에, -하는 김에' 정도를 뜻하고 '단참(單站)'은 '단숨에, 곧장'을 뜻해 '참'에서 쉬어 가지 않고 한 번에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부터 파생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X참'이 두 영역에 걸친 의미를 갖는 경우에 공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보다 식사와 시간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 현대국어로 내려오면서 공간적 의미를 갖는 '참'의 쓰임은 줄어들고 식사나 시간 영역에 속하는 '참'의 쓰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IV. '참(站)'의 의미 확장

이상과 같이 '참'이 한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시기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는 동안 그 용법과 의미의 변천을 살펴보았을 때 현대국어에서

15) 길 다니는 사람들이 도중에 먹는 참.

16) '자릿조반'의 북한어.

17) '새벽널', '새벽밥'의 북한어.

18) 일을 하다가 쉬는 참, 일을 하다가 쉬는 참에 먹는 음식.

공간, 식사, 시간 영역에 속하는 ‘참’이 서로 무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이렇게 공간적 의미만 갖고 있던 ‘참’이 식사 영역으로, 나아가 시간 영역으로 그 의미를 확장해나가게 된 계기를 추론하여보기로 한다.

## 1. [공간(장소)] > [공간(거리)]

‘참’의 의미 확장은 일차적으로 공간적 의미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래 후기 중세국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驛路)를 가다가 쉬던 장소’를 뜻하던 ‘참’은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한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참’의 의미가 거리로 확장되는 예를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19) ㄱ. 흐르 아홉 站식 열 站식 네가들 네 엇디 즐겨 웃듬 물을 가져오디 아니호는다  
(박언 중8ㄱ)  
 ㄴ. 고을로셔 두 참이도록 多人 中의 격기 난분 딘 업고 이 밧기는 바다도  
 비도 조브니 (참해 초 7:4ㄱ)  
 ㄷ. 거리 站 (한불 147)

어떤 특정한 장소 혹은 지점을 의미하던 ‘참’은 한 참과 한 참 사이의 거리를 가리키는 단위가 되어 (19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후 ‘역로’를 배경으로 하여 거리를 나타내던 ‘참’은 (19ㄴ)에서처럼 ‘역로’가 아닌 공간에서도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쓰임의 영역을 확장했고 그로 인해 (19ㄷ)에서처럼 ‘거리’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의 의미가 ‘장소’에서 ‘거리’로 확장되는 과정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표2-‘참(站)’의 의미 확장 과정(장소 >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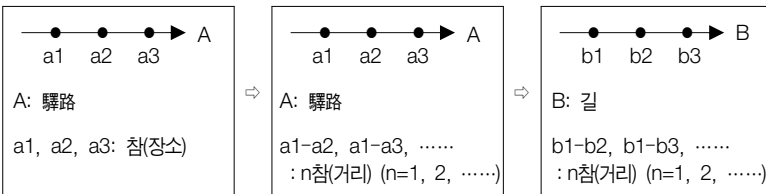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로(驛路=A)에서 각각의 지점을 가리키던 '참(站=a1, a2, a3)'은 'a1'과 'a2', 'a1'과 'a3'과 같이 각 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로 쓰이게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 '역로'라는 특정한 환경이 아닌 '길(=B)' 위에서 어느 한 지점과 다른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게 되었다.

## 2. [공간] > [식사]<sup>19)</sup>

앞서 2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근대국어 시기의 문헌에서부터 '참'의 의미가 식사 영역으로 확장된 예를 찾을 수 있었다. 앞서 보았던 근대국어와 개화기국어 시기의 문헌에서 '참'이 식사어로 나타나는 예를 다시 옮기면 다음과 같다.

(20) ㄱ. 打店地方 낮참 / 中火 中火하다 (몽유 上31ㄱ)

ㄱ'. 腰站 ○ 中火站 打點地方 (역어보 17ㄴ)

ㄴ. 宿站 잘참 (몽유 上31ㄱ)

(21) 밤참 夜點心 a night meal, luncheon at night (한영)

앞서 말한 것처럼 '참'은 공무를 행하는 관리가 쉬어 가며 잠을 자기도 하고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던 장소이다. 따라서 쉬거나 음식을 먹든지 잠을 자거나 하는 '참'의 용도에 따라, 혹은 '참'을 이용하는 시간에 따라 세분화된 단어를 만들어냈다. (20ㄱ)의 '낮참'은 길을 가다가 낮에 쉬어 가면서 낮 시간의 끼니를 해결하는 곳이었음을 보여주며, (20ㄴ)의 '잘참'

19)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끼'와 '끼니'의 예를 들어 의미가 변화할 때에 '공간'에서 '시간'으로의 전이는 자연스러우나 '공간'에서 '식사'로의 전이는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으며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 시간대에 먹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전이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라 조언해주셨다. 물론 '끼'와 '끼니' 외에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에 '아침', '저녁'과 같은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그 시간대에 먹는 음식을 뜻하는 의미로 전이되어서 쓰이는 예도 발견된다. 그런데 '참'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문헌에 나타나는 용례를 관찰하였을 때에 어느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공간적 의미를 가지던 것에서 그곳에서 먹는 음식으로 의미가 전이된 예만 먼저 발견되고 이 사이에 시간적 의미가 파생된 예를 찾을 수 없으며, 자료에서 발견되는 '참'의 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밖의 다른 추론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참'이 식사어로서의 용법을 갖게 된 것은 '낮'이나 '밤' 혹은 '야(夜)'와 같은 시간어와 결합한 환경에서 처음으로 생겨났기 때문에 시간 개념과 아주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참'이 시간어로 전이되었다가 식사어로 다시 전이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이 공간적 용법에서 식사적 용법으로 의미가 전이되는 과정에서 시간 개념이 관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은 잠을 자기 위한 장소를 일컫기 위해 생겨난 어휘이다. 이렇게 식사를 하기 위한 장소를 나타내기 위해 쓰이던 ‘참’이 식사 자체를 의미하게 되어 (21)과 같이 개화기국어 시기에는 장소보다는 식사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장소를 가리키던 단어가 그 행위 자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은 ‘환유’라는 기제를 통하여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임지룡(2002: 20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환유가 “하나의 개념 영역에 있는 어떤 양상이나 요소가 ‘인접성’ 관계에 있는 다른 양상이나 요소를 대신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참’이라는 하나의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휴식, 식사, 취침과 같은 행위들 중 ‘식사’를 지칭하기 위하여 ‘참’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임지룡·김동환 역(2008: 331-333)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X(=매체)$ 는  $Y(=목표)$ 를 대표한다라는 공식으로 ‘참’이 ‘식사’를 뜻하게 되는 것을 나타내 보자면 ‘참은 식사를 대표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근대국어 시기에 ‘참’이 식사를 가리키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점심(點心)’의 의미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연식(2001: 78-80)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기본적 식사는 하루에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이루어졌으며 하루에 식사를 세 차례 하는 경우는 여름철과 같이 낮 시간이 길거나 혹은 여행 중이거나 노동을 하는 등의 활동량이 많을 때였다. ‘점심’은 현대국어에서와는 달리 기본 식사를 하는 시간 사이에 허기가 질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약간의 음식을 먹어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뜻했다.<sup>20)</sup> 그래서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만 하더라도 ‘덤심(點心)’이 어느 특정한 시간에 하는 식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침, 낮, 저녁’ 등을 가리키는 시간 어휘와 결합하여 ‘朝點心, 午點心, 晝點心, 夕點心, 暮點心’과 같이 쓰일 수 있었다.<sup>21)</sup> 그런데 ‘덤심’의

20) 정연식(2001: 70)에 의하면 본래 ‘점심(點心)’이란 단어는 중국의 당대(唐代)에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속이 출출하여 침잠된 마음에 먹을 것으로 점화(點火)하여 활기를 회복함”을 뜻했다. 이러한 의미는 ‘점심’이 식사를 하는 때와는 관계가 없고 식사량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연식(2001)에 따르면 조선시대의 ‘점심’도 이처럼 초기에는 단순히 소식(小食)을 의미했다고 한다.

21) 이 시기의 문헌에서 나타나는 ‘點心’의 예를 정연식(2001: 71)에서 재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ㄱ. 새벽점심: 일찍 일어나 빨리 출발하기 위해 들판에서 밥을 지어먹으니 可化 집의 사람이 즉시 먹을 것을 차려주어 點心을 먹고 갔다. 몇 리를 가니 비로소 해가 났다. (『목재일기』 1558년 8월 12일)

이러한 의미는 16세기 말을 지나면서 ‘낮점심(午點心)’과 ‘점심’을 구분해 쓰는 경향이 생기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sup>22)</sup>,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중식(中食), 곧 하루 세 끼니 중 낮에 먹는 식사를 의미하게 되었다.<sup>23)</sup> 낮에 식사를 하는 경우는 길을 가거나 노동을 하는 등의 특정한 환경에서만 이루어졌는데 사회의 변화 속에서 점차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점심’이 하루 세 차례 행해지는 식사 중 낮에 하는 식사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점심’의 의미 변화가 유사한 환경에서 쓰이고 있던 ‘참’의 의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즉, ‘점심’이 기본 식사 용어로 편입하게 됨에 따라 기본 식사 외에 노동을 하는 등의 경우에 따로 더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새로이 필요해졌으며, 공무를 위해 길을 가는 중에 쉬어 가거나 음식을 먹는 장소로 이와 유사한 경우에 공간적 의미를 갖고 쓰이던 ‘참’이 ‘공무’보다 ‘노동’이라는 더 일반화된 환경에서 하는 식사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다.

- 
- ㄴ. 아침점심: 저녁에 피산 사람 實伊가 와서 고태기를 늙은 계집종 禿德이 아프지도 않았는데 朝點心을 먹고 머리를 감고 말리고 나서 죽어서 구할 수가 없었으니 (『목재일기』 1561년 8월 6일)
  - ㄷ. 낮점심: 黃猷之氏가 아침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함께 朝飯을 먹고 머물러 이야기하다 또 함께 午點心을 먹었다. (『목재일기』 1552년 6월 5일)
  - ㄹ. 저녁점심: 吳子強이 찾아와 장기를 두었다. 呂孺도 와서 함께 夕點心을 먹고 날이 저물어갔다. (『목재일기』 1561년 8월 5일)
  - ㄹ. 밤점심: 날이 저물어 고을 館에 들어가 쉬었다. [...] 欽伸이 이때까지도 도착하지 않았다니 괴이하다. 밤이 깊어서 와서 만나니 매우 기쁘다. 술을 조금 마시고 곧 點心을 먹었다. (『목재일기』 1555년 8월 11일)
- 22) 정연식(2001: 72)에 의하면 임진왜란 시기에 기록된 이정암의 『서정일록(西征日錄)』에서는 낮점심은 반드시 午點心이라 쓰고 아침점심은 그냥 點心이라 쓰고 있어 16세기 말에는 낮에 먹는 점심과 그 외 시간에 먹는 식사를 구분했음을 알 수 있다.
- 23) 정연식(2001: 72-73)에 따르면 그 근거로 이익의 『성호사설(星湖僿說)』과 황윤석의 『이재난고(頤齋亂藁)』 등을 예로 들었다. 『성호사설』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오찬(午饌)을 점심이라 하므로 오찬을 잔뜩 먹고서도 점심이라 부른다”라는 기록이 나오며, 『이재난고』에서도 낮밥은 午飯 또는 점심으로 쓰고 있는데 점심은 항상 낮에 먹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순신 『난중일기(亂中日記)』에서는 ‘점심’이라 기록되어 있던 부분이 『이충무공전서(李忠武公全書)』(1795)를 편찬할 때에는 모두 ‘오반’으로 수정되었고, 18세기 말의 『재물보(才物譜)』에서도 점심을 ‘오반(午飯)’으로 해설하였다. 중국에서는 아직도 ‘점심’을 ‘간식’이나 ‘요깃거리’의 의미로 쓰는데 고소설류에서 ‘점심’이 이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ㄱ. 저놈을 구하야도 었디 못하더니 이제 구티 아녀서 스스로 니르러시니 **금야**의 도히 **점심**을 돈독히 먹을 거시니 직을 먹지 아니하리라 (전등 태허 5:21)
  - ㄴ. 잉잉이 스레홀 일이 업서 **점심**을 ㄱ쵸와 보너시더이다 (평요 2:71)

표3-‘참(站)’의 의미 확장 과정(공간 > 식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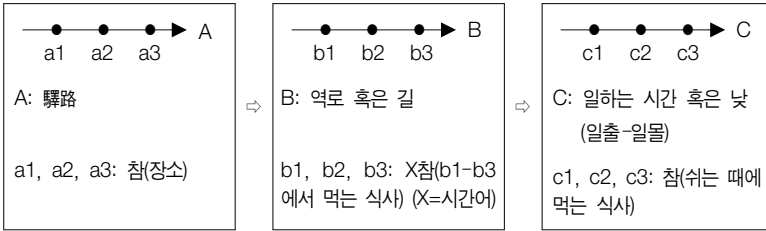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A는 공무(公務)를 위해 지나가는 역로(驛路)이기 때문에 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선적 공간에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참이 세워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a1, a2, a3은 지점(地點)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의 거리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길을 따라가며 참을 지나게 되면 공간적 위치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시간 또한 흐르게 되며 이는 반복되는 낮과 밤의 교차로 이어져 특히 이동이 가능한 낮의 어느 시점에 ‘참’이 위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B와 같이 식사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을 때에는 처음에는 선적 공간인 ‘길’ 위에 위치한 ‘참’에서 먹는 식사를 가리키다가 시간어와 결합하지 않고도 ‘참’이 식사를 가리킬 수 있게 됨에 따라 C와 같이 ‘참’은 선적 시간 영역 위에서 하루 중 어느 때에 먹는 식사를 가리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3. [공간] > [시간]

다음으로 ‘참’이 시간 영역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과정을 살펴보자. 공간어에서 시간어로 전이되는 ‘참’은 한편으로는 ‘시점’을 가리키는 시간어로, 다른 한편으로는 ‘시역’을 가리키는 시간어로 그 의미가 변화한다.

#### 1) 시점(時點): [장소] > [지점] >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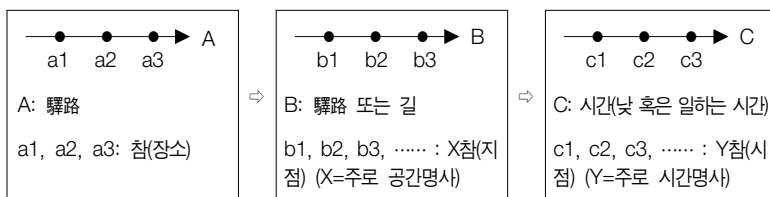
특정한 용도로 설치된 장소를 가리키던 ‘참’은 그 장소가 위치한 지점을 가리키게 되면서 은유적 기제에 의해 시간적인 위치, 즉 ‘시점’을 가리킬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이 시간적 위치, 즉 시점을 가리키는 예를 다시 옮겨 오면 다음과 같다.

- (22) ㄱ. 일은 봄 뉘에는 두 참에 갈나 치은 거시 무방헌니 (잡상 13ㄱ)  
 ㄴ. 조석 설 참 식벽이면 (〈심청전〉 김동욱 소장 90장본 24ㄴ)  
 ㄷ. 그러면 녁일 일즉이 썩나면 저녁출의 드리다하랴 (〈춘향전〉 도남문고본 23ㄱ)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세기 후반의 문헌에서 ‘참’이 처음으로 시간 표현으로 쓰이는 예가 발견된다. (22ㄱ)에서와 같이 수관형사를 선행하여 ‘때, -차례’ 정도를 의미하던 것이 (22ㄴ, ㄷ)과 같이 시간어를 선행하여 ‘때’를 의미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래는 공무를 위해 가던 ‘길’이라는 선적 공간 영역을 나누어 그 지점을 가리키던 ‘참’은 그 쓰임의 배경이 선적 공간인 ‘길’에서 ‘하루’라는 선적 시간 영역으로 전환되었고, 특히 시간 영역 중에서 일을 하거나 이동이 가능한 해가 떠 있는 낮을 주된 배경으로 하여, 낮 중에서 특정한 지점을 가리키게 되면서 시간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B라는 선적 공간 영역에서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는 ‘참’은 일을 하거나 길을 가는 시간이 주로 낮 시간임에 착안하여 일을 하는 시간이나 ‘낮시간’을 나타내는 C라는 선적 시간 영역 안에서 c1-c3과 같이 위치함으로써 일하는 시간(혹은 낮)에 쉬거나 식사를 하는 어느 시점(時點)을 가리킬 수 있게 되었다. 공간 영역은 본래 3차원적이지만 ‘참’은 1차원적인 선적 공간 안에서 그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1차원적인 선적 특성을 갖는 시간 영역으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표4-‘참(站)’의 의미 확장 과정(공간>지점>시점)





## 2) 시역(時域): [장소] > [거리] > [시역]<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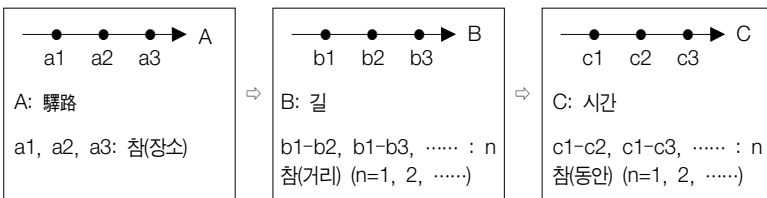
특정한 용도로 설치된 장소를 가리키던 ‘참’은 일차적으로 ‘시점’을 가리키는 용법 외에도 그 의미를 ‘거리’로 확장한 후에 다시 공간적 의미에서 시간적 의미로 전이되었다.

- (23) ㄱ. 새알을 더운 떡다가 흔썸 두거드면 (《독립신문》, 1897년 7월 6일자)  
 ㄴ. 이씨는 구두를 만들 때면 항상 서너 참을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하곤 했다.  
 ㄷ.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돌 참이 지났을까, 비가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이 시간적 의미로 쓰인 용례로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은 ‘흔참’이다. 한 참과 다른 참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던 것이 한 참에서 다른 참까지 이동하는 시간적 길이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소를 나타내던 공간 명사 ‘참’은 그 의미를 ‘거리’로 확장한 후 한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시점과 시점 사이의 거리, 즉 ‘시역’으로 전이되었다. 이렇게 ‘참’이 공간적 의미를 갖던 것에서 시간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시간은 공간이다’라는 은유적 기제에 의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공간에서의 위치 이동이 시간의 흐름으로 대응되며 그 안에서 이동한 거리가 시간이 흘러간 정도로 대응하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간적 위치를 가리키던 용법이 시간적 위치를

표5-‘참(站)’의 의미 확장 과정(장소>거리>시역)



24)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참(站)’의 시간의 의미 확장은 ‘거리’의 의미 확장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일차적으로 ‘참’이 ‘거리’로 해석되는 예가 ‘참(站)’의 의미 확장의 첫 단계로 판단된다고 조언해주셨다. 실제로 문헌상으로도 장소명사 ‘참’이 ‘거리’로 그 의미를 확장하는 예가 가장 먼저 발견되며 이를 통하여 공간어이던 ‘참’이 시간적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가리키는 용법으로 전이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간적 의미는 ‘참’이 관형사절을 선행함에 따라 더욱 추상화된 다. ‘참’이 관형사절을 선행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24) ㄱ.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 준 철거 게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ㄱ'. 나는 밥하기 싫은 참에 압력밥솥 회사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ㄴ. 새해가 시작된 지 10여 일이나 지나고 있는 참이었다.  
ㄴ'. 한참을 갑판 위에 불박여 있는 참에 누군가 말을 붙여 온다.  
ㄷ. 그러잖아도 지금 병원에 가려던 참이다.  
ㄷ'. 방에 들어서려던 참에 김씨의 말이 들려왔다.  
ㄹ. 누군가 문을 열어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참이었다.  
ㄹ'. 항 한 대 피울 참이 못 되어서 그가 한터로 들어서는 것이 보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에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ㄴ/는/던/(으)ㄹ’이 있다. 이때의 ‘참’을 다른 말로 바꾸어보면 (24ㄱ)은 ‘때’, (24ㄱ')은 ‘김(기회)’, (24ㄴ)은 ‘중(中)’, (24ㄴ')은 ‘때(동안)’, (24ㄷ)은 ‘중(中)’, (24ㄷ')은 ‘때’, (24ㄹ)은 ‘생각(예정)’, (24ㄹ')은 ‘동안’으로 해석되어 선행하는 관형사형 어미나 후행하는 조사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적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5)</sup>

## V. 맺음말

지금까지 ‘공간’, ‘식사’, ‘시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참’의 올바른 기술을 위하여 후기 중세국어 시기의 문헌으로부터 현대국어에 이르기까지 자료에서 나타나는 ‘참(站)’의 용례를 바탕으로 하여 위의 세 영역의 의미를 갖고 있는 ‘참’이 다의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음관계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5) 현대국어 사전들에서도 이와 같은 ‘참’의 의미를 기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일되어 있지 않으며 그 또한 ‘참’의 용법 및 의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관형사절을 선행하는 ‘참’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고찰해야만 (2ㄱ)의 ‘참(站)’과 다의관계에 있는지 동음관계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첫째, 본래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驛路)를 가다가 쉬던 장소’를 뜻하는 ‘참’은 고려시대에 처음 생겨난 어휘로서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참과 참 사이 혹은 어느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의미도 갖게 되었다.

둘째, 공간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고 있던 ‘참’은 식사 영역으로 의미를 확장하게 되었음이 문헌의 용례를 통해 확인되었다. ‘참’은 ‘일을 하다가 쉬는 중에, 여가 시간에 먹는 음식’을 뜻하여 공간적 의미의 ‘참’이 갖고 있던 ‘공무 중(=일을 하다가)’, ‘쉬어 가는(=쉬는 중)’과 같은 핵심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참’이 휴식 공간으로서뿐만 아니라 식사 공간으로서 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환유적 기제로도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참’의 의미 확장은 후기 중세국어 시기에 비슷한 의미를 지녔던 ‘덤심’의 의미 변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참’은 시간 영역으로도 그 의미를 확장했다. [수관형사+참], ‘흔참’, ‘단참’, ‘참참이’와 같은 단어에서 시간 영역으로의 의미 확장을 먼저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여러 시간 명사와 결합하거나 명사구나 관형사절을 선행하여 시간적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이러한 의미 확장은 ‘참’이 선적 공간 위에서 어느 한 지점(地點)이나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뜻했기 때문에 은유적 기제에 의하여 1차원적인 추상적 공간을 차지하는 선적 시간 위에서의 어느 한 시점(時點)이나 두 시점 사이의 거리, 즉 시역(時域)을 가리키는 것이 가능해졌으리라 본다.

따라서 공간, 식사, 시간 영역에 분포하여 있는 (27-b)의 ‘참’은 모두 공간적 의미를 갖는 ‘참’으로부터 그 의미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길’, ‘일’, ‘휴식’과 같은 본래 ‘참’이 갖고 있던 핵심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 의미가 ‘식사’, ‘시간’의 영역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다의관계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참’의 세 가지 의미는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기술되어야 하며, 차용어인 ‘참’으로부터 온 것임을 한자어 ‘站’을 명시함으로써 밝혀주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참’의 기술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논의를 맺기로 한다.

#### (25) ‘참’의 기술 방안

참(站) [명]

1. 〈자립적으로 쓰이어〉

- ① (역사)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驛路)를 가다가 쉬던 곳
- ② 길을 가다가 쉬거나 자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곳
- ③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먹는 음식

II. 〈의존적으로 쓰이어〉

- ① 가야 하는 거리나 일을 하다가 쉬는 횟수의 단위
- ② 무엇을 하는(주로 쉬는) 때
- ③ 무엇을 하는(주로 쉬는) 동안

## 참 고 문 헌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 편,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9.
- 과천문화원 편, 『과천향토사 상·하』. 과천문화사, 1993.
- 국립국어연구원 편,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 근대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7.
- \_\_\_\_\_,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개화기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9.
- \_\_\_\_\_,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김민수 등 편, 『(금성판)국어대사전』. 금성출판사, 1992.
- 민현식, 「공간감각어의 의미특성」. 『배달말』 9, 배달말학회, 1984, 119-137쪽.
- \_\_\_\_\_,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1)」. 『국어학』 20집, 국어학회, 1990, 47-71쪽.
- \_\_\_\_\_, 「시간어와 공간어의 상관성(2)」.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태학사, 1991.
- \_\_\_\_\_, 「시간의 개념화 양상」. 『어문학』 제77집, 2002, 201-222쪽.
- 박일환 편, 『우리말 유래사전』. 우리교육, 1994.
-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편, 『조선말대사전 상·하』. 사회과학출판사, 1992·2006.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연세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998.
- 유창돈, 『어휘사연구』. 선명문화사, 1971.
- 윤평현, 『국어의미론 강의』. 역락, 2013.
- 이승수, 「燕行路 中の 東八站 考」. 『한국언어문화』 제48집, 2012, 282-308쪽.
- 임지룡, 「國語에 있어서의 時間과 空間概念」. 『국어교육연구』 12, 경북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연구회, 1980, 111-126쪽.
- 정동경, 『국어 시간 명사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정연식, 「조선시대의 끼니」. 『한국사연구』 112, 2001, 63-95쪽.
- 최기호, 「한참, 새참, 밤참」. 『월간 샘터』 33, 2002, 112-113쪽.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1992.
- 홍윤표, 『살아 있는 우리말의 역사: 어떻게 다르고 언제부터 생긴 말일까』. 태학사, 2009.
- Evans, V. and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he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2008).

## 국 문 요 약

이 글에서는 본래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던 ‘참(站)’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현대국어와 같이 공간, 식사, 시간의 세 영역에 속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원적으로 몽골어 ‘*ṣam*’에서 차용된 것으로 알려진 ‘참’은 고려시대에 역참제도의 도입과 함께 국내로 유입되었으며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사람이 역로(驛路)를 가다가 쉬던 장소’를 뜻하였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던 ‘참’은 근대국어 시기에 참과 참, 혹은 어느 지점과 지점 사이의 ‘거리’를 뜻하게 되었고 식사 영역으로까지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때의 ‘참’은 ‘일을 하다가 쉬는 중에, 여가 시간에 먹는 음식’을 뜻하여 ‘참’이 본래 갖고 있던 ‘공무(=일을 하다가)’, ‘쉬던(=쉬는 중)’와 같은 핵심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참’이 휴식뿐 아니라 식사를 위한 장소로도 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참’은 시간 영역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장하였으며 이때의 ‘참’은 ‘무엇을 하는(주로 쉬는) 때 혹은 동안’을 뜻한다. 이는 ‘참’이 1차원적인 선적 공간 위에서 어느 한 지점(地點)이나 또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1차원적인 선적 시간 위에서 어느 한 시점(時點)이나 또는 두 시점 사이의 거리(=시역)와 같이 그 의미가 전이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간, 식사, 시간 영역에 분포하여 있는 ‘참’은 모두 공간적 의미를 갖는 ‘참’으로부터 의미 확장을 통하여 생겨난 것이므로 하나의 표제어 아래에서 기술해야 하며, 표제어에 한자어 ‘站’을 명시함으로써 차용어인 ‘참’으로부터 온 것임을 밝혀 주어야 한다.

**투고일** 2014. 6. 20.

**심사일** 2014. 7. 28.

**게재 확정일** 2014. 8. 28.

**주제어(keyword)** 참(站, *cham*), 의미의 확장(extension of meaning), 공간적 의미(spatial meaning), 식사 의미 영역(semantic field of meal), 시간적 의미(temporal meaning), 다의적 의미관계(polysemous semantic relations)

## A Diachronic Study on the Meaning of ‘*Cham*(站)’

Jung, Dong-kyong

The word, ‘*cham*(站)’ was derived from Mongolian language ‘*ᠵᠠᠮ*’, originally means “the place where a government official who travels on official business can have a rest.” The meaning of ‘*cham*’ has changed and extended since it came into Goryeo dynasty in early-middle Korean. ‘*Cham*’ has meanings which belong to three fields, such as [space](we can call it ‘*cham*<sub>1</sub>’), [meal](we can call it ‘*cham*<sub>2</sub>’), [time](we can call it ‘*cham*<sub>3</sub>’). By the way,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the descriptions about three meanings of ‘*cham*’ in present-day Korean dictionaries. So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the semantic relation among this three meanings of ‘*cham*’.

The discussion result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the spatial meaning of ‘*cham*(站)’, that is ‘*cham*<sub>1</sub>’, is originally “the place where a government official who travels on official business can have a rest.” In modern Korean, ‘*cham*<sub>1</sub>’ gained the meaning newly, that is “the distance between one ‘*cham*’ and the other.”

Second, the meaning of ‘*cham*(站)’ was extended from meaning area related to space to meaning area related to meal in modern Korean. That is ‘*cham*<sub>2</sub>’. ‘*cham*<sub>2</sub>’ means “some food to eat between meals while people take a rest during working hours or on the road.” We can see that ‘*cham*<sub>2</sub>’ was derived from ‘*cham*<sub>1</sub>’, judging from the phrase ‘take a rest’, ‘working’ and ‘on the road’. So we can come to a conclusion that ‘*cham*<sub>2</sub>’ has polysemous semantic relations with ‘*cham*<sub>1</sub>’.

At last, the meaning of ‘*cham*(站)’ was extended from meaning area related to space to meaning area related to time. That is ‘*cham*<sub>3</sub>’. ‘*cham*<sub>3</sub>’ means “when one takes a rest during working hours” or “while one does something.” It was possible that the meaning of ‘*cham*’ was shifted from space to time which has a linear area because ‘*cham*<sub>1</sub>’ is situated on the road, that is a linear spatial area. So we can come to a conclusion that ‘*cham*<sub>3</sub>’ has polysemous semantic relations with ‘*cham*<sub>1</sub>’, too.

Therefore, we have to specify that ‘*cham*<sub>2</sub>’ and ‘*cham*<sub>3</sub>’ are derived from ‘*cham*<sub>1</sub>(站)’ by describing that ‘*cham*<sub>1</sub>’, ‘*cham*<sub>2</sub>’ and ‘*cham*<sub>3</sub>’ have semantic relations in Korean dictionaries.